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손수경 (Sue-Kyung Sohn)**

이은하 (Eun-ha Lee)***

허진선 (Jin-Seon Heo)****

이수목 (Soo-Mok Lee)*****

손원미 (Won-Mi Son)*****

이현애 (Hyeon-Ae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conducted to deeply understand and explor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the pastor's wives of small churches and to describe the essential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The data was obtain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10 pastor's wives of small churches, who have more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from churches with fewer than 300 members located in the Busan and Gyeongnam areas. Data analyzed using experiential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Colaizzi(1978).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a total of six themes: 'Feeling heartbroken and painful due to disrespectful attitudes and words of church members', 'Sorrow due to departing church members', 'A life of self-denial and carrying the burde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inding a breakthrough in the midst of pain', 'Regaining the lost self and deepening trust in God',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oneself encountered on the journey of calling'.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nterpersonal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Based on these finding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29일 최종수정, 11월 29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부산 서구 감천로 262, sue@kosin.ac.kr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podong36@naver.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hur4503@hanmail.net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leeduddl02@naver.com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sonwm13@naver.com

***** 동의과학대학교(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조교수,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 54, hawh35@gmail.com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olistic programs aimed at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fostering the personal growth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as well as the growth of church members.

Key words: pastors' wiv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small chu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소속 교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로부터 교인이 수십 명에 불과하여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소형교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정금선·양혜원, 2015). 목회 사회학연구소는 한국교회를 소형교회(300명 이하), 중형교회(300~1,000명), 대형교회(1,000명 이상)로 분류하고 소형교회 안에 미자립교회를 포함했고(뉴스앤조이, 2017), 한국교회의 70~80%는 소형교회에 속한다(국민일보, 2023).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형교회들은 사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담임 목회자와 사모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이다(전현옥, 2018).

목회자는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목회자 사모는 목회자의 부인을 지칭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 목회자 사모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로 훈련받으며 준비된 남편과 달리 결혼으로 갑작스럽게 사모라는 직분과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지만, 이들도 남편을 도와 전문적인 목회를 하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간주한다. (김나미, 2015). 또한 목회자 사모는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과 남편의 사역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돕는 조력자로서 많은 역할을 한다(송경화, 2020).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기대하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은 자상한 영적 어머니로서 항상 온유하며 친절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이다(김영수, 2016 ; 손민정, 2014). 즉, 목회자 사모의 위치나 존재는 교회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목회자의 인생 동반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비중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계명·유재성, 2012).

목회자 사모의 사역은 교회 영역과 그 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 사역 지원, 예배 지원, 성도 관리, 행사관리, 재정관리, 식당 봉사, 성가대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윤미래, 2018). 그러나 특정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나미, 2016). 또한 가정에서는 아내, 어머니, 며느리와 딸 등의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외의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 다재다능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견뎌내고 있다(윤미래, 2018).

특히,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가 겪는 어려움 중 심리적 현상에는 주로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절감, 교회 공동체에서의 소외감, 정체성 혼란, 역할 갈등, 현실에서의 괴리감과 허탈감, 엄마로서 죄책감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심계항진 및 면역 저하 등의 신체화 증상

으로도 나타났다(송경화, 2020). 또한 교회공동체에서 고립감을 느낄 때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전현옥, 2018). 따라서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는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내면적, 감정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김광수, 2011). 즉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Commey et al., 2023).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는 교회공동체에서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어도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는 경우가 많고, 나의 남편이 아니라 성도 전체를 대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송경화, 2020).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인품과 영성도 갖추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 사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전현옥, 2018). 따라서 목회자 사모가 겪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돕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양적 연구로는 중소 도시에 위치한 교회의 사모들이 대인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으며(김승국, 2009), 목회자 사모의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나미, 2015). 국내 질적 연구로는 목회자 사모의 심리 현상에 대한 연구(전현옥, 2018),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 등 다수 진행되었으나, 그중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목회자 사모의 역할 경험에 관한 2편의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내용 일부에 포함되어 보고되었다(김보림·김미경, 2020 ; 송경화, 2020). 그리고 목회자 사모 1인을 대상으로 교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소진과 회복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이병애·구자경, 2023)가 수행되었다. 국외의 양적 연구에서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으나, 멘토링 중재연구 프로그램에서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를 다루었고(Commey et al., 2023),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교회사역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국외 질적 연구는 목회자 사모의 외로움 경험(Davis, 2007), 역할 경험(Luedtke & Sneed, 2018), 스트레스 대처 경험(McMinn et al., 2008)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인간관계를 주요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목회자 사모들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인간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소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는 대형교회의 목회자 사모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하였으므로(김승국, 2009)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한 심층 이

해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바탕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어려움을 파악하여 사모를 위한 정신 건강 증진 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긍정적인 갈등 해소 전략 등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Omery, 1983). 특히 간호학에서 현상학적 방법은 간호 대상인 인간을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경험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어 매우 적합하다(이윤정·김귀분, 2008) 그 중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참여자들이 경험한 생생한 체험 현상 자체로 돌아가 그 현상의 보편적 의미를 발굴해 내고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이남인, 2005)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이 겪는 인간관계 어려움을 돕기 위한 간호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성도 300명 이하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로서 교회사역을 3년 이상 경험한 자로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를 3년 이상 사역을 경험한 자로 제한한 근거는 매년 개척하는 교회 중 60% 이상의 교회가 3년 이내 현실적인 문제로 문을 닫는 상황으로 나타났으며(조은희, 2018), 3년이 지나면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어 그들의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역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지역 노회 목회자 단체 채팅방에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의해 목적적 표본추출과 눈덩이 표집법에 따라 모집하였다. 연구의 자료가 포화 된 시점에 최종적으로 10명의 참여자가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되었고,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은 1~2회로 진행하였으며, 1회 면담은 1~3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교회 내 상담실,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등으로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후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심층 면담을 시작하였다. 참

여자의 진술 중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후속 질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주요 면담 질문은 1) 목회자 사모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2) 목회자 사모 사역 중 성도와의 관계 경험은 무엇입니까? 3) 목회자 사모 사역 중 가족과의 관계 경험은 무엇입니까? 4) 목회자 사모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었다.

연구 자료는 참여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녹음하였다. 자료수집 시 참여자의 언어뿐만 아니라 시선, 몸짓, 웃음, 울음, 표정 변화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면담 후 녹음 자료를 연구자가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고, 필사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말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필사 내용을 읽으면서 질문이 누락 되었거나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면담 시 보완하여 질문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으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의 과정 동안 힘들었던 기억으로 울먹이거나, 한동안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등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접근방법 절차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코딩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을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녹음한 후 이를 필사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해서 듣고 읽었다. 2)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을 나타내는 현상을 포함하는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비슷한 의미의 진술들과 중복되는 진술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3) 추출된 문장의 진술들을 연구자의 언어로 재진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4) 도출된 의미 단위들을 공통된 주제로 분류하였다. 5) 주제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 모음으로 구성하였다. 6) 주제 모음을 타당화하기 위해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7) 분석된 내용들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한 후 연구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총체적 기술을 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자들은 간호학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분석론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 워크숍, 질적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학술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을 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질적연구방법

전문가의 지도하에 심층 면담과 자료 분석을 하였다.

본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참여자로 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자료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면담 중 연구자의 감정표현을 자제하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면담 직후 필사를 진행하여 자료의 왜곡 및 누락을 최소화하였다. 더하여 참여자 1인에게 필사한 내용과 분석 결과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았다. 적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목적적 표출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Colaizzi(1978)의 분석 방법 절차에 충실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동안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2인과 토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여 자료 분석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 연구 현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전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심의(KU IRB 2023-0027)를 거쳤다. 참여자들에게는 자료수집 전 연구 목적과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진행 중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알렸다. 면담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되고, 면담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폐기 된다는 것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화하였고, 문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파일 자료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면담 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II.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이었다.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50.7세로 40대 4명, 50대 3명, 60대 3명이었다.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 경력은 최단 3년에서 최장 35년이었다(Table 1). 10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필사 자료는 A4용지 204쪽 분량이었고 자료에서 총 61개의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추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자료와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의미 단위들을 통합, 분류하여 19개의 주제(theme)로 구성하였으며, 다시 공통된 주제를 통합하여 6개의 주제 모음(theme clusters)으로 도출하였다(Table 2).

Table 1 .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나이 (Age/year)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 경력 (Small church pastor's wife's career/year)
연구 참여자 1	41	6
연구 참여자 2	50	7
연구 참여자 3	48	5
연구 참여자 4	62	35
연구 참여자 5	60	30
연구 참여자 6	60	17
연구 참여자 7	52	18
연구 참여자 8	40	3
연구 참여자 9	51	5
연구 참여자 10	43	3

Table 2. Meaning unit, theme, and theme clusters

주제 모음 (theme clusters)	주제 (theme)	의미 단위 (meaning unit)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태도에 부아가 치밀어 오름	화를 내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당황스러움
		예의 없는 교역자 사모로 인해 스트레스받음
		성도의 이간질에 흔들린 다른 성도들이 나를 불신하는 모습에 힘든 마음
	성도의 무례한 언사로 열통이 터짐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으로 힘이 듦
		성도의 태도가 싸늘하게 변해 마음이 힘들
		강하고 직설적인 성도의 무례한 말에 열불천불이 남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	갑자기 성도가 떠날 때의 충격과 상실감	성도들이 나갈 때 느끼는 충격과 상실감
		오래된 성도가 나가면서 멘붕
		역경을 함께 견딘 전우가 떠나 마음이 아픔
	떠난 성도로 인해 남아있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불안함	남은 성도들이 동요해서 떠날까봐 불안함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해서 답답함	관계가 깨지고 안 먹힐 것 같아 반박 못 하는 아쉬움
		참고 듣기만 하는 게 힘들
		말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스트레스
	타인을 의식해 행동을 조심해야 함	예의 없는 사모에게 상처 줄까봐 참고 지켜봄
		타인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해야 함
		관계를 위해 성도의 말에 맞추고 수긍하려 함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음
	강요된 좋은 관계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성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됨
		새 신자에게 다가갈 때 부담됨
		무조건 수용하고 웃고 넘겨야 하는 것이 힘들
		맞지 않거나 싫은 사람도 관계를 맺어야 함
	나를 잃어버려 마음의 병이 생김	사람이 싫어짐
나를 잃어버림		
마음의 병이 생김.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숨 쉴 구멍	남편과 함께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함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함	마라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말씀캘리그래피로 치유와 안정을 얻음
	행복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감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함
		힘든 일은 지나갈 것이라 믿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됨	기도로 이겨내며 응답에 감사함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계의 지혜를 깨닫고 적용함	관계를 잘하려고 말을 아끼게 됨
		성도와 나의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함
자신감이 생김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기로 결심함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음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함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맞추지 않기로 함	
		무조건 참지 않음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함	잃어버린 내 인생의 길을 가기로 함	
		싫은 사람은 마음에서 비워내기	
		이전에 못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함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던지 내 마음 지키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	
		진심을 다했으니 언젠가는 알아줄 것으로 생각함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으로 됐다고 여김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낌	선한 마음으로 성실히 걷다 보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이루실 것을 믿음	
		영적 세계가 넓고 깊어짐	성도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어 감동함
			마음을 알아주어 위로받고 고마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존중받고 인정받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어 돌아보고 챙김
			성도들 덕분에 즐거움
	힘들지만 보람됨		
	교회의 성장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됨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함.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됨	
		영적 유익이 있음	
		새 신자를 만나는 것이 기대됨	
		교회 영적 분위기가 변해 기쁨을 느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함	
		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함	
새 신자의 변화에 기쁨을 경험함			

1.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교회 내 인간관계에서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로부터 경험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목회자 사모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하였고, 관계를 잘 이어 나가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런 자기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되고 변명의 기회도 없이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참여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속상하고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1)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태도에 부아가 치밀어 오름

참여자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친근한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였으나 이러한 태도를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이 솔직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성도들이 차갑게 돌아서기도 하였고, 오랫동안 서로 신뢰를 쌓아왔다고 믿었던 성도들이 등을 돌리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분위기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기센 성도로 인해 마음 졸이기도 하였으며, 같은 입장이라 생각했던 부목사 사모의 예의 없는 행동들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아는 체를 하고 나대냐!” 하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때 좀 너무 함부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참여자 3)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바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싸늘하게 이렇게 바뀌시고 직원들이 싸늘하게 바뀌시고 갑자기 돌변할 때 그때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것 때문에 살갑게 대했던 정도인데 갑자기 싸늘하게 이렇게 차갑게 대할 때가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개척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그 개척 교회를 휘어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척 교회를 찾아다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많이 힘들죠.” (참여자 10)

2) 성도의 무례한 언사로 열통이 터짐

참여자들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애써 노력한 일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한 말로 하찮게 여기는 성도로 인해 화가 나고 황당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자신을 무례히 대하는 성도에게 목회자 사모의 입장에서 따질 수 없기에 참아야만 했고, 이로 인해 속상한 마음에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며 속이 들끓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정말 강한 분이요 또 직설적인 분이요 자기표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죠…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반찬을 냈는데) 이거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에요? 이러는 거라… 나 진짜 황당하더라고… 얼마나 이거 고민해서 목사님하고 레시피를 어찌 해가지고 맛있게 할까 유튜브 보면서 그레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막 속에 열불이 천불이 올라온 거야.” (참여자 5)

2.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

이 주제 모음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갈 때 겪게 된 상실감과 마음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다.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커다란 상실감과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성도가 떠날 때는 섭섭함을 넘어서 내 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크나큰 상실감과 절망감마저 느꼈다.

1) 갑자기 성도가 떠날 때의 충격과 상실감

참여자 대부분은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실감을 경험하였다. 마음으로 의지하던 교회의 중직자나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성실한 성도가 나갈 때는 절망감이 느껴질 만큼 커다란 상실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사모도 목회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하였다.

“청년이 한 명 나갔고 어느 집사님이 나갔는데 다 10년 20년 가까이 됐던 사람들인데 나가면서 그때 제일 크게 맨붕이 이제 뽕뽕 친 거지… 청년이 나가고 내가 일주일 2주일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너무 목회하기 싫고 나 사모 너무 하기 싫고 나 다 때려치우고 싶고 다 접고 그냥 목회 다 때려치우자.” (참여자 5)

“제일 힘든 거는 일꾼들이 빠져나갈 때 그렇죠… 중직 자일 경우… 그때는 그냥 막 몸 안에 뭐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엄청난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절망감이라고 해야 하나… 상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폭 빠지면 확 기울잖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죠.”(참여자 6)

2) 떠난 성도로 인해 남아있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불안함

목회자 사모는 성도가 떠나갈 때 상실감과 함께 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소형교회는 한 사람이 떠난 빈자리가 크고, 그만큼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떠난 성도로 인해 남아있는 성도들이 동요하여 교회를 모두 떠나 버리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걱정이 확 드는 거죠… 자꾸 그냥 그 현상만 보기보다는 그렇게 딱 일어났었을 때 그 이후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다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약간 이제 불안함들이…” (참여자 10)

3.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면서 느낀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참여자는 성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만 했고,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긴장감을 느꼈고, 싫은 사람과도 표면상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살아내야 했으므로 나다운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해서 답답함

참여자들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만 해서 답답함을 느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반론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반박하지 못하였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참고 듣기만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성도와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듣기와 수용만을 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고, 말 못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하고 싶은 변론이나 반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변명이나…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참 못한다는 게 아쉽지… (중략). 따지면 관계가 깨지고 성도가 나가고… 그 성도의 마음도 상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사모의 입장이니까 이게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중략). 갑자기 내가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참아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순종하면서 걸어가야죠.” (참여자 1)

2) 타인을 의식해 행동을 조심해야 함

사모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참여자들은 항상 타인을 의식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조용히 있게 되었다. 내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상처를 주게 될까봐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원만한 관계를 위해 성도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고 맞추어 주어야만 했다. 내 모습대로 살고 싶지만,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을 의식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어 참여자들은 답답함을 느꼈다.

“모든 사모님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저도 행동을 조심하거든요. 항상 말을 조심하게 돼요. (중략). 나도 말할 줄 아는데 그런 말을 해버리면 부담이 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조금 조심해지게 되고 조용히 있게 되고 그렇죠.” (참여자 1)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갔지. 그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그 사람 의견을 따라주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 크게 판단도 안 하고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 줬지.” (참여자 5)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격과 제 그 모든 은사와 그런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내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은 자숙은 해야 하겠죠… (중략).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만, 하지만 상황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는 그래도 자숙할 때가 훨씬 많죠.” (참여자 10)

3) 강요된 좋은 관계를 위해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

참여자들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감을 느꼈고, 특히 새 신자에게 처음 다가갈 때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다. 성도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헤아려 줘야만 하였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성도들로

인해 마음 상황 때도 있지만 웃고 넘겨야 하는 현실이 힘들었다. 악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것이 사모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싫어도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처음에 다가갈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을 내가 친근감 있게, 이분도 어색하지 않게 저도 다가가 줘야 하는데 제 성향이 그런 걸 못 하는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9)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야 한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맞지 않고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야 하고 관계를 또 잘 맺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 10)

“모든 인간관계를 힘들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잡고 가야 하는 거 그게 가장 사모의 십자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자 10)

4) 나를 잃어버려 마음의 병이 생김

참여자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을 좋아했던 내가 사모가 되면서 사람이 싫어지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영적으로 침체하여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말해야 하는데 내가 섭섭하면 섭섭하다 이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이거 못하겠으면 못 하겠다 이랬어야 하는데. (중략)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한 거죠.” (참여자 5)

“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평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난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 5)

“내가 병이 생기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나도 성령의 기쁨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완전히 바닥을 치더라고 막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사는 데 왜 이러지 영적으로도 아무 기쁨이 없고 이런 예배의 기쁨도 없고 그냥 목사님 설교도 막 지겨워지고…”(참여자 5)

4.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어려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돌파구를 찾은 경험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고, 나만의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안정을 얻게 되었다. 현재는 고통 속에 있지만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육이 서서히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극복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사역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1)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숨 쉴 구멍

참여자들은 힘들 때마다 편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는 같은 일을 하는 타 교회 사모를 만나거나 친한 친구와 얘기할 때 속이 시원함을 느꼈다. 이처럼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내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진짜 아직도 좋거든요. 저는 금실이 좋아서 항상 밥 먹고 바람 쐬러 가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둘이 그냥 바람 쐬러 밥 먹으러 가고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풀리는 것 같아요.”(참여자 1)

“그나마 저랑 친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랑 약간 상담 아닌 상담 약간 투정 아닌 투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같이 둘이 떡볶이 먹으면서 힘들다 이러면서 그러면 약간 그렇게 하면서 하고…”(참여자 10)

2)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함

참여자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 해소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각자 나만의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일부 참여자는 마라톤을 하면 몸도 좋아지고 정서적으로도 좋아진다고 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는 캘리그래피를 배우면서 행복감을 느꼈으며 성경 말씀 캘리그래피와 성경을 필사하는 것으로 치유와 안정감을 얻었다.

“내가 글자를 쓸 때 행복감을 느꼈던 것이 생각났어.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했지. 배우면서 내가 힐링이 되는 거라…”(참여자 5)

“마라톤은 근데 참 좋은 운동이네. 돈도 안 들지… 몸도 좋아지고 몸을 움직이니깐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거 하고 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힐링 된다고 해야 하나…”(참여자 6)

3) 행복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감

참여자들은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남편도 아이들도 교인들도 모두 행복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힘든 일이 계속 있겠지만 신앙생활과 목사 사모로서 삶은 평생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으며, 앞으로 만나게 되는 힘든 일과 시간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행복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행복해야 우리 남편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교인들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힘든 일이 있겠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또한 항상 그때 그랬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힘든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또 믿어야죠. 뭐 어찌겠어요? 저희는 이게 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참여자 10)

4)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됨

참여자들은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 평안한 마음과 건강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다. 더하여 기도하면서 더욱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도 했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차츰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기도해도 당장은 그때 답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로는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참여자 10)

“나는 너무 갑갑한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성도들은 하는데 나는 또 와 이러노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그 이후로 영적으로 이제 많이 깊어졌죠. 방언 받은 이후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야.”(참여자 5)

5)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계의 지혜를 깨닫고 적용함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고통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지혜를 얻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말하지 않고 기다려 주기, 성도와 갈등이 표출될 것 같을 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미묘한 감정이 생기면 말 대신 SNS로 감정 표현하기 등의 방법을 적용하며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성도와 사이에 아무리 친분이 깊은 관계라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시행착오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점점 사역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요… 일단 말을 안 해야 해요.”(참여자 3)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요.”(참여자 7)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들다가 그거 한 번 또 보면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참여자 5)

5.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이 주제 모음은 참여자가 심리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실천과 행동에 대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성도와 타인들을 자신보다 먼저 돌보고 마음을 써야 했기에 힘들조차 내색할 수 없었지만,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모로서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성도에게 쏟은 노력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로 주가 이끌어

주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기로 결심함

참여자들은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내하기 위해 자신보다는 성도들을 먼저 챙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성도들로 인해 상처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서 지친 참여자들은 이제부터는 자신도 돌아보고 사랑하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즉,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무조건 참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 마음 안 중요해요. 저는 뭐냐 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지금 내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흔들려서 내가 신앙 잃고, 내 사랑하는 마음 까먹고 내가 원래 사랑했던 게 교회인데 내가 원래 행복했었던 장소가 이곳인데 이곳을 잃어버리는 거는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고 끝까지 이곳을 사랑하고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말든 나는 사랑할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 시선에 옛날에는 예민했었어요. 엄청 날카롭고 예민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막 그랬어요.” (참여자 5)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냥 지금은 그냥 별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약간 마음이 화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꿔주시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 것 같고...” (참여자 10)

2)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함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느꼈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내어서 하기도 했고, 남들이 무엇이래 해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것이라고 굳건히 마음을 다졌다. 타인의 마음만을 헤아리지만 우선 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그리며 걸어가기로 하였다.

“그때 아팠던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왜 그랬냐고 나는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내가 레테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것 같이 믿음의 후퇴가 없더라고요. 뒤로 빠져 침윤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묵묵히 걸어가는 거

조 한 걸음씩이요.” (참여자 4)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절대 남한테 싫은 소리 진짜 못하는 성격인데, 그게 너무 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5)

3)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

참여자들은 사모로서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진심으로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하였기에, 옳고 그름, 즉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의탁하였다. 지금 사모로서 역할을 선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성도 때문에 화나고 해도 이럴 필요가 뭐 있나 생각이 들고 이런 정의와 판단은 주님이 하시고 심판도 주님이 하시고 그냥 나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옳다 하시더라고요. 됐다. 그래서 그냥 됐어요.” (참여자 4)

6.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

이 주제 모음은 사모로서 경험하면서 얻게 된 자신과 교회의 성장에 관한 것이다. 참여자들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 만족함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가 넓고 깊어졌으며 나아가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

1)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었지만, 자신의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들을 통해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와 성도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사소한 것이라도 챙겨주려 노력하는 성도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어 감동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들 덕분에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준다 이거지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다른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나 한마디 하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 진심이 느껴져서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내

가 위로받고 좀 그래 되는 거지 특별한 뭐 어떻게 뭐 거창한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이 그냥 고맙다 그냥 이 정도로 느끼는 거지.” (참여자 5)

“같이 함께하는 교인들이 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일을 다 같이 하고 있고, (중략) 그분들이 음식 해 놔주니까 와서 먹고 가라고 초대를 받아 가서 보면 식탁이나 이런 거 없이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저희 오니까 대접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또 소소하게 하면서 감사하게 먹거든요. 대접해 주니까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한 게 보여요. 그 마음을 아니까 또 저도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죠.” (참여자 7)

2) 영적 세계가 넓고 깊어짐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었지만 반면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영적, 심리적으로는 더욱 자유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사모의 길이지만 뒤돌아보면 결국 자신이 성장하게 되었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첫 면회를 갔는데 자살할 것 같은 거야. (중략) 그런데 딱 집에 왔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중략) 화장실에 앉아서 볼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딱 하는데 내가 천국하고 이걸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를 허락하신다. (중략) 천국과 내가 맞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자 4)

“사모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도 안 드는데 한 번씩 어떤 생각 하나면 사모가 안 됐으면 영적인 세계를 정말 몰랐을 거다. (중략) 어떤 교회든지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니깐 내가 영적으로 안 되면 아무 케어가 안 되고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아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하고 말씀 공부해야 하고 하다 보니 내가 영적으로 섰다. 안 그러면 영적인 경험 성령의 체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했겠죠. (중략)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함은 정말 많았다. 근데 우리 사모로 꼭 살아야 하나... (웃음) 다시 사모하라면 절대 안 하지.” (참여자 5)

3) 교회의 성장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참여자들은 교회에 새 신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기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좋은 분위기로 변화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꼈다. 종종 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모로서 존재 이유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감사함을 느꼈다. 특히, 새 신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역하는 사모로서 큰 기쁨이었다.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차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고, 새 신자를 만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다.

“이게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어느 순간 되게 뜨겁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느껴져서 분위기가 변한 게 보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중략)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빠르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중략)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성도님들이 새신자실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새신자분들이 조금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되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중략) 하나님 응답이 제일 기쁘죠. 교회가 변화되는 게 조금조금 보이니까” (참여자 1)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의 영향으로 교회를 이제 나가신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않아도 이렇게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잖아.” (참여자 2)

III. 논의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의 본질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생생한 체험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 모음을 중심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 모음인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성도들로 인해 겪어내야 했던 고통에 관한 내용이다. 성도들은 목회자 사모가 모든 것을 풀어주는 온유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김영수, 2016; 손민정, 2014)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 사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전현옥,

2018) 성도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목회자의 사모이기 때문에 참아내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었다. 따라서 많은 목회자 사모가 교회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어 나가면서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송경화, 2020). 특히, 소형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관계의 폭이 좁아 사모의 사역 범위가 넓고 성도들과 접촉점이 많아서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 사모 역시 한 사람의 성도이자 사역자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인간관계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도와 사역자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제 모음인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은 사모 역시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생길 때 겪어야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 관한 내용이다. 소형교회는 목회자 사모의 역할 비중이 매우 큰 만큼(전현옥, 2018)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관리하며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윤미래, 2018) 더더욱 성도들이 떠나갈 때 겪는 상실감과 허탈감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대다수의 목회자 사모는 대인관계의 외로움과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shley, 2020). 따라서 목회자 사모가 겪는 심리 정서적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정서적인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형교회 사모를 대상으로 한 지지 모임을 운영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소형교회 사모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역에 대한 동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주제 모음인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느낀 심리적 현상이다.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참고 듣기만 하는 것이 힘들었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감과 부담감을 느꼈으며 성도들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했다. 선행연구에서도 목회자 사모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고(전현옥, 2018), 특히 심리적 어려움은 주로 관계에서 느낀 거절감, 소외감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송경화, 2020).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사모의 책임인 ‘십자가’라고 생각했고 싫어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사모이기 이전에 본연의 자기 모습을 점점 잃어가며 영적 침체도 경험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김나미, 2015). 그러므로 목회자 사모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고자 방어기제로서 지속적인 억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심리적 불건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심리적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주제 모음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에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 내의 인간관계 갈등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소형교회 사모들은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이나 남편과 대화하거나, 다양한 취미생활, 인내와 소망,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갔다. 선행연구에서 목회자 사모들이 성도와의 갈등 스트레스를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겨내려 애쓰고, 취미생활이나 공부, 운동 등으로 해소하며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어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결과(남민영, 2024)와 목회자 사모 대부분은 가족과 사회적지지, 기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대처한다는 연구 결과(Chan & Wong, 2018)는 본 연구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소진될 수 있는 소형교회 사모를 위해 교회 및 교단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노회 중심으로 소형교회 사모를 위한 정기적인 치유세미나 등을 운영하거나 심리적 영적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이 사역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실재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다섯 번째 주제 모음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에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그들의 역할을 감내하며 교회 사역 가운데 함몰되고 지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현재와 미래의 인간관계를 의탁하며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는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사모로서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사역으로 힘을 얻게 되는 선행연구(윤미래, 2018)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자기 발견과 영적 회복을 통한 심리적 영적 성숙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개선된 방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 사모는 본인 스스로는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로 상담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송경화, 2020). 그러므로 목회자 사모의 자기 이해를 돕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목회자 사모들이 겪는 인간관계로 인한 시행착오는 물론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하여 목회자의 사모로서 교회사역 가운데 특히 성도들과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여섯 번째 주제 모음인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은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로 지내며 얻게 된 자신과 교회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다. 사모들은 자신의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를 통해 위로받고 고마움을 느끼며 사역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만족함을 경험하였다. 이는 개인이 주위로부터 받은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Quamma & Greeberg, 1994) 목회자 사모로서 사역하며 자아실현과 성장을 하였다는 연구 결과(Brunette-Hill, 1991)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현옥(2018)의 연구에서도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도 사회적지지 속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가지고 사모가 잘하는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남편과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의 사모 역할에 대한 재정의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의된 사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와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사역 중 힘든 인간관계를 통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심리적 자기 탐구와 더불어 영적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김병오(2012)의 연구에서 목회자 사모들은 영적 성숙을 향한 간절한 의지와 적극적인 신앙적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해룡(2002)은 영성은 자아가 영적인 세계로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들도 인간관계의 시행착오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남으로 현재의 삶을 재해석하고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체험하면서 행복,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지속해서 받으면서 목회 현장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과 같이 목회자 사모를 위해서도 신학 및 목회 상담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해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교회 사모를 위하여 공동체 또는 지지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인간관계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회 및 교단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도 300명 이하의 소형교회 담임 목회자 사모로서 3년 이상 사역을 경험한 10명이었다. 연구 결과,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은 6개의 주제 모음과 19개의 주제, 61개의 의미 단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숨은 사역자로 불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가 사역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관한 인식, 태도, 느낌 등을 탐색하고 드러내어 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개선과 향상을 위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는 사역 과정 중 인간관계를 겪으며 심리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 성도와 사역자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인간관계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갈등 해소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회자 사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교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이들의 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심리 치유 간호 중재를 제공하고, 노회 중심으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위한 정기적인 치유세미나 등을 운영하여 심리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와 지지 모임을 운영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 사역에 대한 동기를 새롭게 하여 심리적, 영적 성숙을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인간관계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지속해서 사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인간관계 역량 향상을 위해 교회 및 교단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구체적 결과를 반영하여 자기 이해, 대인관계 기술 및 상담 기술 및 영성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위한 전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 결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타 지역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계명·유재성 (2012). 글쓰기 치료를 통한 목회자 아내의 전인적 안녕 제고.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23(2), 9-30.
- 김광수 (2011). **인간관계론**. 서울: 도서 출판 청람.
- 김나미 (2015).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2), 252-261.
- 김나미 (2016). 목회자 사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2), 673-685.
- 김병오 (2012). 상처와 슬픔의 치유. 서울: 도서 출판 대서
- 김보림·김미경 (2020). ‘목회자 사모가 되어가기’에 관한 내러티브탐구. **복음과 상담**, 28(1), 85-118.
- 김승국 (2009). **한국 재림교회 목회자 사모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김영수 (2016). 소도시의 소형교회 사모들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신학과 실천**, (51), 223-250.
- 남민영 (2024). **목회자 사모의 신자와의 관계갈등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손민정 (2014).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송경화 (2020). 목회자 사모의 경험 이해를 위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복음과 상담**, 28(1), 147-181.
- 유해룡 (2002). **하나님 체험과 영성 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윤미래 (2018). **중년기 목회자 사모의 우울 경험**. 박사학위논문. 수도권제대대학원대학교.
- 이남인 (2010).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대한 질적 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 91-121.
- 이병애·구자경 (2023). 목회자 사모가 교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소진과 회복에 대한 내러티브탐구.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34(2), 75-106.
- 이윤정·김귀분 (2008). 임상간호사의 이직 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48-257.
- 전현옥 (2018). **미자립교회 목회자 아내가 경험하는 심리 현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정금선·양혜원 (2015). 소형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의 복지사역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0(4), 161-196.
- Ashley, E. R. (2020). *Thriving Holistically as a Woman Married to a Minister: A Spiritual Formation Model to Support Wome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Role of Pastor's Wife*.

-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Fox University.
- Brunette-Hill, S. (1991). *His job, her life: a survey of pastors' wives*. Masters Dissertation. Marquette University.
- Chan, K. & Wong, M. (2018). Experience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pastors' wives in China.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2(3), 163-171.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mmey, I. T., Ninnoni, J. P. K., Asamoah Ampofo, E. & Miezah, D. (2023). Living with Schizophrenia: the rol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scover Psychology*, 3(1), 13.
- Davis, J. L. (2007). *Alone in a crowd: A phenomenological inquiry into loneliness as experienced by pastors' wives*. Liberty University.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1st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Luedtke, A. C. & Sneed, K. J. (2018). Voice of the clergy wife: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2(1), 63-72.
- McMinn, M. R., Kerrick, S. P., Duma, S. J., Campbell, E. R. & Jung, J. B. (2008). Positive coping among wives of male Christian clergy. *Pastoral Psychology*, 56, 445-457.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4.
- Quamma, J. P. & Greenberg, M. T.(1994). Children's experience of life stress: the role of family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as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3), 295-30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11.27.). “목회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 국민일보 (2023.03.27.). “소형교회 목회자들 은퇴 후의 삶이 위태롭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3660>.
- 뉴스앤조이 (2017.11.01.) “중형교회의 위기, 기독교 생태계 위협.”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97>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s of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손수경 (고신대학교)

이은하 (고신대학교)

허진선 (고신대학교)

이수목 (고신대학교)

손원미 (고신대학교)

이현애 (동의과학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실시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부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성도 300명 이하의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로 3년 이상 경험한 자 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도의 무례한 태도와 언사로 마음이 쓰리고 아픔', '떠나가는 성도로 인해 비통함', '자신을 억압하고 관계의 십자가를 지는 삶', '고통 속에 찾아낸 돌파구',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소명의 여정에서 만난 나와 교회의 성장'으로 총 6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인간관계 경험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형교회 목회자 사모의 자기성장과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인간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전인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목회자 사모, 인간관계 경험, 질적연구, 소형교회